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12월 23일 (금), 순복음동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기념하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열었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의 연극, 연합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협연, 무용팀의 공연 등으로 예수 성탄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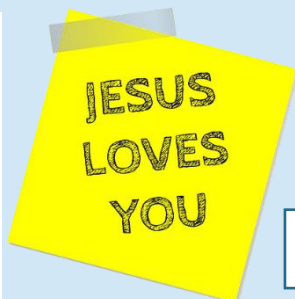
크리스마스 칸타타가 끝나고,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과 싱어즈가 인도하는 찬양예배를 드려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 목차

- P2 : 정동균 목사 축복성회 & 목사안수식
- P2 : 추수감사절 “특별 찬양예배”
- P3 : 지형은 목사 축복성회
- P3 : 야외예배
- P4 : 담임목사 컬럼 “마음과 건강”
- P4 : 조용기 목사의 기념관



발행 || 순복음동경교회  
 편집 || 문서선교회  
 주소 || 신주쿠구카부키초2-2-19  
 전화 || 03-3232-0667  
 FAX || 03-3232-0729  
 WEB || www.fgtc.jp/kr/



순복음동경교회  
 홈페이지는 여기   
 ( 홈페이지에서도 신문열람가능합니다.)

<http://www.fgtc.jp/kr/>





# 정동균 목사 축복성회 & 목사 안수식

2022. 12. 14 (수)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 창세기 1:26~28 —

12월 14일 (수), 순복음동경교회는 정동균 목사(기독교 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서울남부교회 담임)초청 축복성회 및 목사안수식을 거행했습니다.

양현근 목사의 사회로 드러진 축복성회는 시가끼 시계마사 담임목사의 감사소개 후, 정동균 목사가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3가지 확신”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정동균 목사는 “크리스천은 창조의 확신, 구원의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연만물이 창조를 증거하고 있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믿음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신임목회자의 서약 후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정동균 목사에 의한 안수가 이어졌습니다.

엄진용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무, 여의도 순복음수원교회 당회장)가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기를”이라며 격려사를 전하였고, 정동균 목사의 축사로 끝났습니다.

현재 한세대학교 부총장인 김정일 장로는 2023년 3월부터 첫 선교지인 샛포로성전에서 담당목사로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김정일 목사를 위해, 샛포로성전과 샛포로신학교를 위해 여러분의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추수감사절 「특별 찬양예배」 2022. 11. 20 (주일)



11월 20일 (주일) 17시, 순복음동경교회는 하나님께서 1년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추수감사절 특별 찬양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주일 전인 11월 14일 (월)부터 18일 (금)까지 추수감사절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려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찬양예배는 바이올린, 피아노, 드럼, 기타 등

다양한 악기와 함께 찬양이 이끄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설명하고, “하나님께 감사, 가족과 이웃에게 감사, 항상 감사를 잊지 않도록”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감사의 인생을 걸어가기를”이라고 전하며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특별 찬양예배를 통해 사랑과 은혜와 감사의 감동을 안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지형은 목사 축복성회

2022. 11. 3 (목)



2022년 11월 3일 (목, 축일) 11시, 순복음동경교회는 성락성결교회 담임목사인 지형은 목사를 초청해 축복성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이기도 한 지형은 목사는 바쁜 와중에도 순복음동경교회를 방문하여 “예수님의 말씀묵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율법교사에게 그 지식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됩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각자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를,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일본 열도의 복음화가 이뤄지기를”이라며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형은 목사를 통해 알려주신 말씀묵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  
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  
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  
면 살리라 하시니 - 중략 -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  
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 누가복음 10 : 25~37 —

## 야외예배 @ 요요기공원

2022. 10. 10 (월)





# 시가끼 시계마사 담임목사 컬럼 “마음과 건강”



“내 아들이 내 말에 주의하여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 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 잠언 4:20~23 -

마음을 지키고 지배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인생, 운명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을 이를 위한 네가지 요소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상상력입니다. 사람은 의지력보다도 상상력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주 “작심삼일”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의지력의 한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예로 들자면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고 실패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 성공한 사람도 결국엔 요요현상이 오게 됩니다. 그만큼 사람의 의지력은 의지할 말한 것이 못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영적 존재이며 심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상상력을 부여해 줌으로 축복받을 그릇을 주셨습니다. 상상력이라고 하는 그릇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인 것입니다. 사람의 상상력은 의지력을 밀어붙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번영의 상상력을 주셨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창15:5)

이와 반대로 부정적 상상력을 발휘하면 멸망과 파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른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4:8)라고 말씀합니다. 상상력은 꿈을 창출합니다. 오종복음과 삼박자 축복의 생각을 하고, 위대한 상상력을 발휘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고 창조적, 적극적, 생산적인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삶의 목표입니다. **목표설정**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과거의 업적이나 현재의 환경보다도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목표입니다. 목표가 없는 백성은 방황하고 멸망합니다. 목표에는 두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영원한 목표로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하여 살며 어디로 가시지를 아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실생활의 목표로 오늘, 내일, 다음달, 내년의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이 두가지의 목표가 없다면 마음과 인격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언어입니다. 사람은 언어로 자신을 표현하고, 의지 표시를 합니다. 언어로 행복을 만들어 갈 수도 불행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잠18:21) “네 입의 말로 네가 얻었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잠6:2) 혀가 마음과 인격을 지배합니다. 부정적, 파괴적, 소극적인 발언을 피합시다. 긍정적, 건설적, 창조적, 적극적인 발언을 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대로 됩니다.

넷째는 창조의 원동력인 믿음입니다. 성공자와 패배자의 차이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신념유무의 차이입니다. 성취의 원천은 모두 신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비행기에 타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타면 파일럿(하나님)에게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것은 모두 안에 있는 것의 현재화(顯在化)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하고, 삶의 목표를 세워, 언어를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그것이 성취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4차원의 영성입니다.

## 조용기 목사의 기념관



2020. 7. 19

故 조용기 목사의 마지막 주일설교 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 처해도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그러면 오늘날도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2022년 10월 8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였던故 조용기 목사(1936~2021)의 기념관이 경기도에 있는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 개관했습니다.

故 조용기 목사의 정신과 목회 자세 계승을 위해 개관한 기념관에는故 조용기 목사의 생전 사역과 목회 역사를 알 수 있는 신앙의 유산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